

2) 월계사지(月溪祠社)

1856년(철종 7)에 창건(創建)한 월계사(月溪祠)에 올진 장씨(蔚珍張氏) 관시조(貫始祖)인 매계(梅溪) 말익(末翼) 선생과 8세손인 판서(判書) 양수(良守)의 양현(兩賢)을 배향(配享)하였는데, 1868년(고종 5)에 철폐되고 사지(祠社)가 있다. 그 후 1924년에 가원동(佳原洞)에 이설(移設)하였다.

3) 일우정(一愚亭)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에 있는 정자이며, 1901년 장주신이 건립하였다. 일우정은 남대천변 경사지에 서쪽을 향하여 세워져 있다. 정면 3칸, 측면 반 칸 규모의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평면은 중앙에 1칸 마루를 두고, 좌우에 1칸 온돌방을 들인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으로 방과 마루의 전면에 뒷마루를 두었다.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일우정기(一愚亭記)」가 전한다.

4) 전동산(全銅山)

주변의 흙 색깔이 ‘누른 구리 같다’ 하여 전동산(全銅山)이라 불렀다고 전하며, 이 흙으로 와현동(瓦峴洞)에서 기와를 구웠다고 전한다.

제22절 호월2리(湖月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남대천(南大川)이 흐르며 내(川)의 건너편에 뾰두봉이 바라보이는 ‘높은들(高原洞)’이 있고, 서쪽은 신림리 지역인 삼거리와 정림3리인 올미골과 접해있다. 남쪽은 중첩된 산 너머에 읍남4리인 상토일(上吐日)이 위치하며, 북쪽은 앞내를 건너 호미산(虎尾山) 너머 박금동(拍琴洞)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9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 전원주택이 다수 들어섰다.

2. 마을의 역사

1) 용저동(龍渚洞)

1579년경에 담양인(潭陽人) 전정수(田正秀)와新安人) 주문식(朱文湜)이 개척

(開拓)하였다는 설(設)과 1640년경에 광주인(光州人) 노우명(盧佑命)이 개척하였다는 설이 전한다. 마을의 뒷산(山) 형국이 ‘용(龍)이 남대천(南大川)에 내려와 물을 먹고 있는 듯 뻗어 있다’ 하여 용저(龍渚)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2) 장례동(壯禮洞)

개척(開拓) 연대(年代)는 미상(未詳)이며, 마을 앞에 긴 냇물이 흐른다고 하여 장류곡(長流谷)이라 하였고, 1854년에 신계서원(新溪書院)이 건립(建立)된 후부터 예(禮)를 숭상(崇尚)한다는 뜻에서 장례동(壯禮洞)이라 개칭(改稱)하여 부르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53세대가 거주하며 담양 전씨(潭陽田氏)가 주를 이루며,新安 주씨(新安朱氏), 예천 임씨(醴泉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논덕정(論德亭)

건립(建立)연대는 미상(未詳)이며, 유현(儒賢)들이 모여 학문(學問)을 논(論)하고 덕(德)을 기른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대곡샘(大谷泉)

범바위골에 범의 모습을 닮은 큰 바위가 있는데, 이곳에서 샘물로 눈을 씻으면 눈병이 낫는다고 전한다.

3) 성황당(城隍堂)

마을에는 두 곳의 성황당이 있다. 입구에 있는 신목(神木)인 노송(老松)은 ‘할배당’이며, 마을 중앙의 당집은 ‘할매당’이다. 매년 음력 정월 15일 자정(子正)에 마을의 강녕(康寧)과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4) 신계서원(新溪書院)

1750년(영조 26) 지방 유림이 김삼연(金三淵)과 김수근(金洙根)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신림리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826년(순조 26) 용제동으로 이건하였다가 1851년(철종 2) 다시 이건하였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

그 뒤 1968년에 현재의 위치에 복원하였다. 경내의 건물은 3칸의 용제사(龍堤祠), 6칸의 상서당(尙書堂), 신문(神門), 3칸의 동재(東齋)와 서재, 정문, 2칸의 장서각(藏書閣), 2칸의 전사청(奠祀廳), 8칸의 주소(廚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전택오(田宅五) 정려각(旌閭閣)

조선 후기 울진 출신의 효자인 신묵재(愼默齋) 전택오를 기리는 정려이다. 1891년(고종 28)에 동몽교관조봉대부(童蒙敎官朝奉大夫)로 증직(贈職)하고,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호월리 용저마을 재집골 북서쪽 경작지 옆에 있다. 비각은 단칸 규모의 기와집이다. 바닥은 시멘트로 마감하였고, 전면에 살대를 세워 벽체를 대신했으며, 나머지는 판벽이다. 주변에 선축으로 담장을 둘렀다.

6) 호계정(虎溪亭)

울진읍 용저동 호미봉 서쪽 산자락 아래의 남대천변에 자리 잡은 장예마을에 있는 정자이다. 울진 장씨 직장공파(直長公派) 문중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종중(宗中)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문을 강의하기 위하여 1932년에 건립하였다. 지금의 호계정은 1985년에 중수하였다. 정자는 정면 4칸, 측면 2칸 반 규모로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이은 기와집이다. 평면 구성은 중앙에 2통칸의 마루방을 두었고, 양측으로 2통칸의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이며, 앞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을 설치한 전퇴 5량의 가구 구조를 하고 있다.

7) 호미산(虎尾山)

용저동(龍渚洞)의 앞산으로 능선(菱線)을 경계로 북쪽은 박금동(拍琴洞)이며, 남쪽은 정림1리(井林一里)와 맞닿아 있다. 산의 모양이 ‘범의 꼬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23절 호월3리(湖月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무월동(舞月洞) 뒷산인 고조봉(高助峯)이 있으며, 용저동(龍渚洞)과 접하였다. 남쪽은 호월 3리인 가래골이 있고, 가원동(佳原洞) 뒷산인 삼문봉(三文峯)이 바라보이며, 북쪽은 현종산(顯鍾山)이 명도2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9년에 신축하였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